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선교팀원 : 이민영, 김동수, 김종한, 김현정, 박인주, 서영수, 서현숙, 석동훈,
신미라, 이승택, 이영순, 최정민, 한주루, Edwin 김,
기다엘, 기유빈, 나유빈, Eunice 안, Chris 안, Cameron Warner
- 공동의회 공고
일시 : 2017 년 12 월 17 일(주일) 예배 후
안건 : 2018 년 보드원 선출
다음 주일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명단과 관련 교칙을 배부하겠습니다.

2017 년 12 월 안내 : 하 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 서 현숙 권사 / 시편 85:1-2, 8-13 편

이번 주 친교 : 이 영배 집사 / 김 경숙 집사

다음 주 친교 : 김 현정 권사 / 이 현주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9 호

2017 년 12 월 03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 반주자 : **박 양희**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 년 12 월 03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105 장(통 105 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다함께
대표기도 (Invocation)	시편(Psalms) 80:1-7, 17-19 변 명균 집사
찬양 (Choir)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Offering and Pastoral Prayer)	인도자
성경통독 (Scripture Reading)	겔(Ezek) 1:26-28; 11:22-25; 43:1-5 인도자
설교 (Sermon)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445 장(통 502 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11. 26. 주일 설교 요약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단 6:10-28; 7:13-18)

은혜와 구원의 기록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돌무더기가 될 수 있지만, 고난의 포로 생활도 여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돌무더기가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기록부와 커리큘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처방, 즉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가겠으나 그 가운데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터이니 그곳에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포로생활과 회복이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만 집단을 이루고 숨어 살지 않고 바벨론 옷을 입고, 바벨론 이름을 받고, 그 학문을 배워 번성했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번성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대로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스스로 살리고 높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이 번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번성할수록 더 큰 믿음의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청년으로 바벨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부했을 때에는 왕실에 발탁되지 않을 각오를 한 것이지만 왕의 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를 그치지 않음으로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할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잃어버릴 것도 많아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언제나 믿음의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믿음을 지키고 복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잘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유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성공이 너무 커서 버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나님 뜻을 어겨야만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위험이 커질수록, 책임이 막중해 질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절묘해집니다. 영양실조와 불합격과 풀무불과 사자굴과 질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위험을 피해 숨거나, 스스로 극복하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거나 정치하지 않았습다. 더욱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이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고 위험해 보이는 하나님의 품을 향해 직진할 때 지키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역사의 주인인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도,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의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 엎드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왕들과 대제국들도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은 별과 같이 존귀했으며 쇠하지 않는 나라를 얻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되니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역설입니다. 나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지키려다가, 그것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다. 우상이 되었던 눈앞의 축복을 잃고 나니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의 근원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것처럼 능력의 근원도 크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포로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역사 속의 위대한 세상 나라들의 폐허 위에 굳게 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보호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륜입니다.